

스티로폼 분리수거 생활 속으로...

부천시, 2003년 368톤 재활용 ... 무상처리시스템 운영 선례 남겨

경기도 부천시가 스티로폼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실적이 가장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회장 황규익 신호유화 대표이사)는 6월2일 홀리데이인서울호텔에서 열린 <제6회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부천시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부천시는 자체 폐기물종합처리장내에 160여평 규모의 전국 최대 스티로폼 처리시설을 갖추고 1일 처리능력 3톤의 감용설비를 가동해 2003년 한해 동안 368톤(어상자 184만개 상당)을 재활용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부천시는 스티로폼 무상처리시스템을 운영해 관내 스티로폼 다량 배출처인 농수산대리점, 대형매장, 편의점의 스티로폼도 적극 재활용하는 등 다른 지자체에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또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재활용품 전시장을 운영해 62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활용이 생활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부천시 외에 전국 시도별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지자체로 서울 영등포구, 부산 연제구, 대구 수성구, 광주 서구, 대전 대덕구, 울산 북구, 강원 홍천군, 충남 천안시, 충북 진천군, 전남 광양시, 전북 익산시, 경남 김해시, 경북 영덕군, 제주 북제주군 등 14곳이 선정됐다.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는 금호석유화학, 동부한농화학, 신호유화, LG화학, 제일모직, 한국BASF 등 스티로폼 원료 메이커 6사와 포장재 가공기업 모임인 한국EPS형물협의회가 스티로폼 포장재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1993년 설립했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6/11>